

0세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이 어머니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사 분담 불균형의 조절효과

손승희*

본 연구는 0세 첫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 양육 및 가사 분담의 상대적 불균형이 어머니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두 불균형 간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하였다.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2022)에 참여한 어머니 1,629명을 대상으로 어머니가 보고한 자신과 배우자의 양육 및 가사 참여 비율을 기준으로 양육 분담 불균형과 가사 분담 불균형 점수를 산출하였다. SPSS 23.0과 PROCESS Macro 4.2 model 1을 이용하여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부 양육 분담 불균형과 가사 분담 불균형 모두 어머니 결혼만족도를 유의하게 낮추었으며,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이 어머니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사 분담 불균형의 조절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가 양육과 가사를 모두 상대적으로 많이 담당할수록 결혼만족도 하락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났고, 반대로 아버지가 양육을 더 담당하는 가정에서는 가사 분담 불균형의 부정적 효과가 완화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신생아 첫 자녀를 둔 가정의 부부 역할 분담의 공정성이 어머니 결혼만족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부부의 공평한 육아 및 가사 분담을 위한 부모교육 및 정책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주제어 : 0세 첫 자녀,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 어머니 결혼만족도

논문 투고일 : 2025. 07. 31. 최종심사일: 2025. 08. 24. 게재확정일: 2025. 09. 20.

*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Son, Seung Hee, 70, Hannam-ro, Daedeok-gu, Daejeon, Republic of Korea, 34430. E-Mail : shson@hnu.kr

I. 서 론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이나 가정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 되었다.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이혼율 증가, 저출산, 개인의 우울감 및 스트레스 증가 등의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박영화·고재홍, 2005; Gottman & Levenson, 2000).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만족도는 개인과 가정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정과도 관련된 중요한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가족 내 관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Barnett & Hyde, 200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 부부관계가 원만해질 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서고운, 2017; 김진희·임지영,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연령, 학력 등 인구학적 특성부터 부부 간 의사소통 방식,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나경애·민경석, 2020; 오성은·김한성, 2020; 서미정, 2017; Gottman & Levenson, 2000), 최근 들어 부부의 양육 및 가사 분담이 어머니 결혼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권연희·장영은, 2025; 김경철·강보미, 2022).

부부가 결혼을 하고 첫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부모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역할을 재조정하게 되면서 둘만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 시기는 각 가정만의 고유한 양육 및 가사 분담의 초기 패턴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후 부부 관계의 지속성과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Turner-Zwinkels & Spini, 2019). 만약 이 초기 단계에서 역할 분담에 불균형이 생긴다면 어머니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저하될 위험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기로 전이한 부부들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극적으로 감소하고 결혼만족도 수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미정, 2018; Belsky & Kelly, 1994). 신혼부부 130쌍을 대상으로 6년 간 실시한 종단연구에서도 첫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가 자녀가 없는 어머니에 비해 부모기 전이 동안 결혼만족도가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였다(Shapiro·Gottman, & Carrère, 2000). 0세 자녀를 둔 부부의 역할 분담 패턴은 이후 부부관계의 안정성과 어머니 결혼만족도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서는 자녀 양육과 가사의 책임이 거의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부과되어왔다. 비록 최근 들어 성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로 아버지의 양육이나 가사 참여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양육과 가사의 부담이 어머니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2024년 실시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의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1시간 24분, 아내는 3시간 32분으로 128분의 차이가 나타나 100분 내외의 서구 국가에 비해 그 차이가 큰 편으로(통계청, 2025; 지표누리, 2025)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어머니들이 가사 부담을 더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할 부담의 불균형은 여성의 경력 지속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결혼만족도 저하와 이혼 또는 출산 기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지표누리, 2025).

이와 같은 이유로 가정 내 부부간 공평한 역할 분담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부부 역할 분담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양육 및 가사 분담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왔다. 양육 분담이란, 자녀 양육 시 가족 구성원과 적절히 역할을 나누는 것으로(전승희, 2014),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0세 자녀 양육 시 해야 하는 수유, 낮잠 재우기, 밤잠 재우기, 트림시키기 등과 같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가사노동이란,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구성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모든 무보수 활동으로(김영란, 2019), 본 연구에서 가사 분담이란 0세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필요한 빨래, 설거지, 청소 등과 같은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일들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누어 수행함을 말한다.

아버지의 양육 및 가사 참여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높였으며(권연희·장영은, 2025), 아버지 자신의 결혼만족도보다 어머니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서미정, 2017). 또한 취업모의 경우 남편의 주말 가사 참여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김미령, 2011). 흥미롭게도 부부의 실제 가사 분담 수준보다 어머니가 그 상황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의 여부가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평등한 가사 역할 분담 인식이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유계숙·강수향·오아림·이주현, 2011).

이처럼 부부의 공정한 역할 분담이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권연희·장영은, 2025; 김경철·강보미, 2022; 서미정, 2017; 김미령, 2011)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또는 가사 참여의 절대적 수준에 주로 초점을 맞춰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이 어느 정도 육아나 가사에 참여하는지와 같은 양적 수준은 많이 다루고 있지만 한 가정 내에서 부모 간 참여 비중의 차이, 즉 상대적 불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를 주제로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데 사회적으로 남녀 역할 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아이와 놀아준다.’, ‘필요한 육아용품을 사온다.’, ‘아이의 목욕이나 식사를 도와준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평정하는 리커트식 척도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이나 가사 참여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아버지의 양육이나 가사 참여 유무 또는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부모 각각이 얼마나 양육이나 가사에 기여하는지 상대적 역할 분담의 차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역할 분담 불균형이 어느 쪽으로 치우쳤느냐 하는 문제는 부부 간 공정성 인식과 직결되며 이는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유계숙 등, 2011; Kalmuss·Davidson, & Cushman, 1992).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의하면 인간관계에서의 만족과 지속성은 개인이 제공하는 자원(input)과 얻는 보상(output) 간의 균형 또는 공정성 지각에 좌우된다. 따라서 부부 간 역할 분담의 불균형은 이러한 교환의 불공정성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Homans, 1958). 실제로 영국의 밀레니엄 코호트 연구(Millennium Cohort Study)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녀가 9개월, 3세, 5세, 7세 시점에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부 5,624쌍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자녀가 9개월 되는 시점에 자녀 양육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자 보고한 참여 빈도를 바탕으로 전체 육아에서 아버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상대적 육아 참여 비중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고, 이혼율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Schober, 2012).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할 때 단순히 역할 분담의 불균형 유무뿐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담당하고 있는가 하는 방향성까지 파악하는 것이 부부의 역할 분담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역할 분담의 상대적 불균형의 방향성도 파악하고자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및 가사 참여의 합을 10점으로 산정하고 주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자신과 남편의 양육 및 가사 참여 비율을 응답하게 하였다. 이후 어머니의 참여 비율에서 아버지의 참여 비율을 뺀 값을 각 가정의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 및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 점수로 정의하였다. 어머니의 양육 또는 가사 참여 비율이 높은 경우에 점수는 양수이며, 아버지의 양육 또는 가사 참여 비율이 높은 경우 음수로 계산된다. 만약,

이러한 차이를 절댓값으로만 표시하면 부부의 양육 및 가사 참여에 불균형이 있다는 것은 파악되지만 어느 배우자가 더 많이 기여하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양수와 음수로 계산한 점수를 통해 불균형의 정도와 방향성을 동시에 파악하여 선행연구들에서 부부 각각의 양육 및 가사 참여 유무 또는 정도만으로 역할 분담을 평가했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권연희·장영은, 2025; 김경철·강보미, 2022; 나경애·민경석, 2020; Kalmijn, 1999; Schober, 2012)는 양육 분담과 가사 분담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쳐 두 개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0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양육과 가사 역할 수행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0세아를 돌보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청소나 빨래 수준을 넘어 반복적인 분유 준비, 이유식 조리, 수유 도구 살균, 영아용 의류 세탁 등 양육과 가사가 얹혀진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즉, 밀접하게 연관된 가사와 영아 돌봄이 가사와 양육의 경계를 흐려지게 하여 상대적으로 가사에 많이 참여하게 될 경우 양육에도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느껴져 불균형에 대해 더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육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가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가사에는 참여하지만 육아에는 소극적일 수도 있다(허미애·윤상일, 2024). 이처럼 한쪽 역할에는 참여도가 높고 다른 쪽에는 낮은 경우 결국 전반적인 역할 불균형으로 인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육과 가사 분담을 분리된 벤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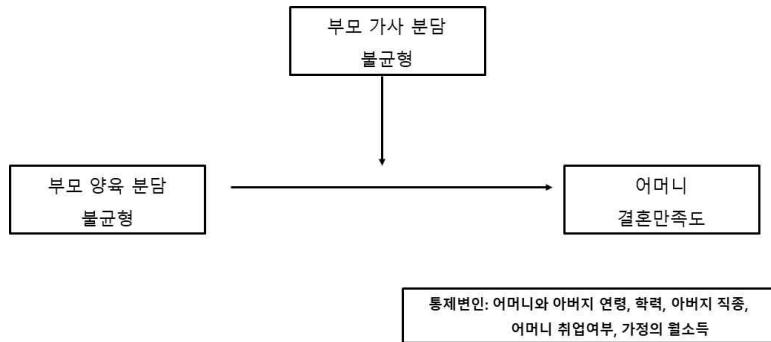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양육 분담과 가사 분담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개별 영향 만을 살필 때 파악할 수 없는 상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양육과 가사 분담의 상대적 비율이 신생아기 첫 자녀를 둔 가정의 어머니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 전이기의 어머니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부부의 양육 및 가사 분담에 대한 부모교육 자료 및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 양육 분담의 불균형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 가사 분담의 불균형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이 조절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패널(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nel Study)의 1차년도(2022) 조사에 참여한 평균연령 6.4개월의 자녀를 둔 어머니 1,6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패널은 2022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태아기부터 초등학교까지 아동과 가족을 둘러싼 복합적인 환경을 포함한 아동의 성장 및 발달을 추적하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데이터이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적의 어머니가 주양육자이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자녀와 동거하고 0세 자녀가 첫째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 취업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학업중인 어머니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 및 미취업 어머니만을 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대상 어머니는 30대가 1,188명(72.9%), 4년제 대학교 졸업이 876명(53.8%), 취업모 834명(51.22%), 사무직 종사자가 616명(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의 월소득은 500만원대가

459가구(2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아버지의 인구론적 변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버지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면, 아버지는 30대가 1,202명(73.8%), 4년제 대학교 졸업이 888명(54.6%), 사무직 종사자가 445명(27.3%)으로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1)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은 한국 영유아 교육·패널 연구(2022)에서 사용한 질문지로 측정하였다. 질문지는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응답하며, ‘현재 아기 양육을 어떻게 분담하고 계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주십시오(예- 어머니 8: 아버지 2)’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 점수는 [어머니 양육 참여 비율 - 아버지 양육 참여 비율]을 계산하여 부모 양육 분담 비율 간 차이를 수치화하였다. 예를 들어, ‘어머니 양육 참여 비율’이 8, ‘아버지 양육 참여 비율’이 2인 경우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 점수는 6이 된다.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 점수의 범위는 -10~10점으로 절댓값이 크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분담 불균형이 크다는 의미이다. 또한, 부모 양육 불균형 점수가 양수이면 어머니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 음수이면 아버지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

부모 가사 분담의 불균형은 한국 영유아 교육·패널 연구(2022)에서 사용한 질문지로 측정하였다. 질문지는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응답하며, ‘현재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계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주십시오(예- 어머니 4: 아버지 6)’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 점수는 [어머니 가사 참여 비율 - 아버지 가사 참여 비율]을 계산하여 부모 분담 비율 간 차이를 수치화하였다. 예를 들어, ‘어머니 가사 참여 비율’이 4, ‘아버지 가사 참여 비율’이 6인 경우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 점수는 -2가 된다.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 점수의 범위는 -10~10점으로 절댓값이 크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사 분담 불균형이 크다는 의미이다. 또한,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 점수가 양수이면 어머니가 가사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 음수이면 아버지가 가사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어머니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한국 영유아 교육·폐널연구에서 사용한 Chung, H.(2004)의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귀하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하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와 같은 내용의 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7점 척도를 어머니가 평정한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7점)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척도의 Cronbach α 는 .92이다.

4)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과 학력 및 직종, 어머니 취업여부, 가정의 월소득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 및 가정의 월소득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주관식으로 답변하는 연속변수이므로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학력과 직종은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이분화하여 더미코딩하여 사용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0, 전문대 졸 이상= 1로,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고하여 비전문직(단순노무종사자, 장치기계조립종사자, 판매 종사자 등)= 0, 전문직(사무종사자, 전문가, 관리자)= 1로 더미코딩하였다. 어머니 취업여부도 취업중= 0, 미취업= 1로 더미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3.0과 PROCESS Macro version 4.2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관계 및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 중 범주형 변인들은 더미코딩 하였다. 셋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어머니가 지각한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 및 가사 분담 불균형이 어머니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이 양육 분담 불균형과 어머니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Hayes(2022)의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하여 조절효과 분석 및 단순기울기 검증을 실시한 후 Johnson-Neyman 방법에 따른 유의성 영역을 표와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Bootstrap으로 확인하였고, 모형의 Bootstrap 신뢰수준은 95%, 샘플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모 양육 및 가사 분담 불균형과 어머니 결혼만족도의 일반적인 경향 및 정규성 검토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 및 정규성 확인을 위해 평균, 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의 평균은 $-.20$ ($SD=2.47$)로 점수가 음수이긴 하지만 0에 매우 근접한 값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비슷한 비율로 양육에 참여하는 경향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의 평균은 -2.07 ($SD=3.78$)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가사에 조금 더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평균은 22.87 ($SD=4.48$)로 높은 수준의 결혼만족도를 보인다고 할 있다. 각 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의 왜도가 ± 2 , 첨도도 ± 4 기준을 충족하여 (Weston & Gore, 2006) 각 변인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판단하였다.

<표 1> 기술 통계 및 정규성 검토

($N=1,629$)

변인	범위	<i>M</i>	<i>SD</i>	왜도	첨도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	-10~10	$-.20$	2.47	$-.81$	1.13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	-10~10	-2.07	3.78	$-.36$	$-.23$
어머니 결혼만족도	4~28	22.87	4.48	-1.14	1.37

2. 부모 양육 및 가사 분담 불균형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 가사 분담 불균형,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과 가사 분담 불균형은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r=.36, p<.01$). 두 변인의 값은 [어머니 참여 비율- 아버지 참여 비율]로 산출되므로 값이 양수일수록 어머니의 참여 비율이 높고, 음수일수록 아버지의 참여 비율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는 어머니의 상대적 양육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상대적 가사 참여 비율도 높고, 아버지의 상대적 양육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상대적 가사 참여 비율도 높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가정일수록 가사 역시 어머니가 더 많이 담당하며,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가정일수록 가사도 아버지가 더 많이 담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r=-.24, p<.01$) 및 가사 분담 불균형($r=-.23, p<.01$)은 각각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머니 양육 참여 비율이 높은 경우 그 값이 양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는 의미는 어머니의 상대적 양육 참여 비율과 가사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의미이다. 종합하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양육 및 가사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2> 부모 양육/가사 분담 불균형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N=1,629$)

변인	1	2	3
1.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	1		
2.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		.36**	1
3. 어머니 결혼만족도		-.24**	-.23**

** $p<.01$

한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니지만 종속변인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관계가 있는 변인을 회귀모형 1단계에 통제변인으로 투입하기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Pearson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

과 같다. 어머니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학력($r=.13, p<.01$), 아버지의 학력($r=.12, p<.01$), 아버지 직종($r=.06, p<.01$), 가정의 월소득($r=.10, p<.01$)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r=-.07, p<.01$), 아버지의 연령($r=-.06, p<.01$)과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중일수록,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가정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표 3>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N=1,629)$

변인	어머니 결혼만족도
어머니 연령	-.04
어머니 학력	.13**
어머니 취업여부	-.07**
어머니 직종	-.06
아버지 연령	-.06*
아버지 학력	.12**
아버지 직종	.06*
가정의 월소득	.10**

* $p<.05$, ** $p<.01$

3.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과 어머니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가사 분담 불균형의 조절효과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가사 분담 불균형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어머니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어머니 학력과 취업 여부, 아버지 연령, 학력 및 직종, 가정의 월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과 가사 분담 불균형을 평균중심화한 후 상호작용항을 산출하였다.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2.95, p<.001$), 설명력은 14%로 나타났다.

주효과를 살펴보면,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B=-.44, p<.001$)과 가사 분담 불균형($B=-.16, p<.001$)은 어머니 결혼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과 가사가 어머니에게 편중될수록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과 가사 분담 불균형의 상호작용항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7, p<.001$). 이는 양육 분담 불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의 조건부 효과 탐색을 위해 Johnson-Neyman 방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탐색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조건부 효과가 유의한 구간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 결혼만족도에 대한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의 영향력은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의 전구간(-1SD, M, +1SD)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 정도에 따라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 수준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2]와 같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가사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우,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양육에 더 참여하면 어머니 결혼만족도의 하락 폭은 완만하였지만,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양육에도 더 많이 참여하면 어머니 결혼만족도 하락 폭은 크게 나타났다.

<표 4>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과 어머니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의 조절효과
($N=1,629$)

	변인	<i>B</i>	<i>SE</i>	<i>t</i>	R^2	ΔR^2	<i>F</i>
통제변인	어머니 학력	.06	.18	1.70			
	어머니 취업여부	.01	.15	.24			
	아버지 학력	.08*	.17	2.25*			
	아버지 직종	-.03	.06	-.90	.01	.01	
	아버지연령	-.12**	.03	-3.39**			
	가정의 월소득	.02	.00	.60			12.95***
주효과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	-.44***	.07	-6.42**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	-.16***	.04	-3.63***	.12	.11	
상호작용항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 ×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	-.07***	.02	-3.62***	.14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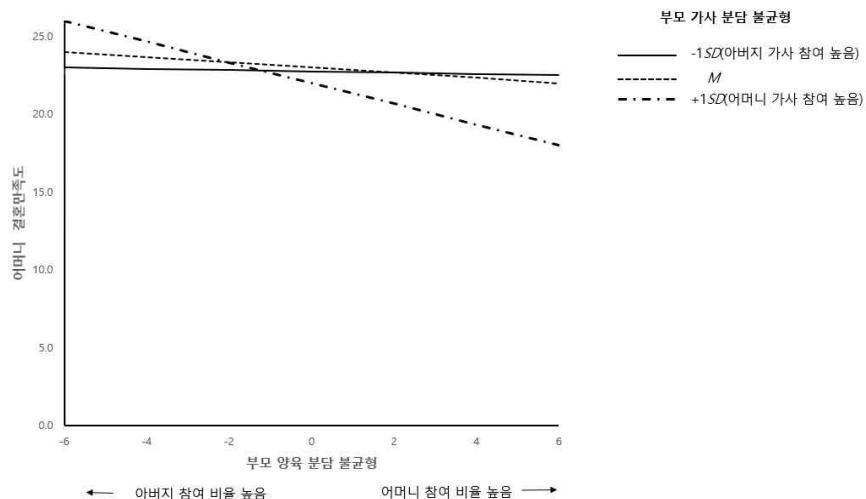
* $p<.05$, ** $p<.01$, *** $p<.001$

<표 5>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 조건값에 따른 상호작용 유의성 검증

(N=1,629)

조절변수	수준	<i>B</i>	<i>SE</i>	<i>t</i>	95 % CI	
					LL	UL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	<i>M-1SD</i>	-.17	.07	-2.63**	-.17	-.03
	<i>M</i>	-.44	.06	-5.05***	-.23	-.10
	<i>M+1SD</i>	-.73	.10	-5.92***	-.47	-.24

** $p < .01$, *** $p < .001$



[그림 2]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 조건에 따른 어머니 결혼만족도의 점수 변화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 양육 및 가사 분담의 불균형이 어머니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이 어머니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 가사 분담 불균형이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는 어머니의 양육 참여 비율이 높아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 점수가 양수인 경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졌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 비율이 높아 점수가 음수인 집단의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종합하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육아를 담당하는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평균 6.4개월 영아'를 둔 초보 부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유, 수면 등에서 요구되는 0세 영아의 전적인 의존성, 밤중 수유로 인한 부모의 수면 부족, 산후 회복이 끝나지 않은 산모의 상태 등으로 인해 양육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을 수 있다(Swanson & Hannula, 2022) 이 때 어머니가 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녀 양육을 하게 되면 체력적·정서적 소진이 심화되고, 이는 배우자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 결혼만족도의 저하로 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으며(김경철·강보미, 2022), 아버지가 자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어머니가 결혼생활에 만족을 하고, 그 만족이 다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로 전이되는 긍정적 순환 경로가 형성되었다(나경애·민경석, 2020)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 참여 비율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의미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양육 분담에 대한 상황을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0세 자녀를 둔 부부에게 '배우자와 비교할 때 누가 더 집안일과 양육에 많이 참여한다고 느끼십니까?', '이 같은 분담은 귀하에게 얼마나 불공정/공정하다고 느껴집니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자녀 돌봄과 집안일 분담의 공정성을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어머니가 자녀 돌봄과 집안일 분담이 공평하다고 느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Chong & Mickelson, 2016)고 하였다. 본 연구대상 가정의 자녀가 0세, 첫 자녀임을 감안할 때 예측 불가능한 양육 상황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저조하여 그 부담이 어머니에게 과도하게 쏠릴 경우 첫 자녀를 출산하여 잘 키워보고 싶은 이상적인 마음과 혼자서 양육을 해야 하는 힘든 현실 간의 괴리가 확대되어 결혼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Doss·Atkins, & Cristensen, 2003). 0세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아내가 시키는 육아일만이라도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극적 양육자'의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허미애·윤상일, 2024), 0세 아버지를 대상으로 본인이 양육의 주체임을 깨닫게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통해 부부 모두 양육의 주체라는 의식을 갖고 공평한 역할 분담을 협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부모 가사 분담의 불균형은 어머니 결혼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가사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가사 참여 수준이 높으면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들(김미령, 2011; 유계숙 등, 2011)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앞선 논의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아버지가 가사에 참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와 비교하여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참여하는지 즉, 얼마나 공평하게 참여하는지가 어머니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hong & Mickelson, 2016). 부부가 청소, 설거지와 빨래와 같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가사를 공평히 나눌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졌다며(Carlson·Miller, & Rudd, 2020), 첫 자녀 출산 후 가사 분담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인식한 어머니들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졌다(Dew & Wilcox, 2011). 0세 영아를 돌보는 상황에서 빨래, 설거지와 같은 계속되는 가사노동은 어머니에게 신체·정신적으로 피로감을 유발하고 아버지가 이 상황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을 때 어머니의 불만족은 가중될 수 있을 것이다. 가사노동의 불균형은 단지 일의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 동반자 의식과 공정성 인식의 문제로 0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과 어머니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가사 분담 불균형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양육과 가사를 모두 많이 하는 경우에 보다 강력하게 나타났다. 0세 가정에서의 양육과 가사를 살펴보면 밤중 수유 후 젖병 세척 및 살균, 기저귀 교체 후 즉각적인 세탁 및 폐기 등 돌봄이 곧 가사이고 가사가 다시 돌봄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이다. 이렇게 양육과 가사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한 냉어리로 얹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사에 많이 참여하게 될 경우 양육에도 많이 참여한다고 느끼며, 양육에 많이 참여할 경우 가사에도 많이 참여한다고 느낄 수 있다(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 이러한 이유로 육아와 가사에 대한 책임이나 실행이 모두 어머니에게 기울게 될 경우 어머니는 끊임없는 양육과 가사를 혼자 감당하게 되어 피로와 불공정감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첫 자녀 출산 후 어머니가 자신의 가사 노동 비중이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고 부부의 역할 분담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부부 관계만족도가 높게 유지된다고 밝힌 연구(Newkirk et al., 2016)를 통해 볼 때 첫 자녀 출산 후 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양육과 가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부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공정한 역할 분담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가사 참여 수준이 높더라도 아버지가 양육에 어머니보다 더 많이 참여하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의 하락 폭은 완만한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는 가사보다 양육을 더 정서적·신체적으로 소모적인 노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Curtis·Nagase, Kim, &

Holloway, 2022) 아버지가 양육에 많이 참여할 경우 힘든 일을 남편이 해주고 있다고 지각하여 본인이 가사에 좀 더 참여하더라도 부부 관계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고 결혼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적 관계에서 보상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려는 합리적 존재라는 점을 전제로 타인과의 관계 유지 여부를 이익의 크기에 따라 판단한다고 본다(Homans, 1958). 결혼 관계에서도 부부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보상과 자신이 감수하는 비용을 비교하며 만족도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교환의 공정성이 결여된 상황, 즉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부담이 크다고 인식할 경우 갈등과 관계 단절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론에서 말하는 보상은 정서적 지지, 인정, 협력 등이 될 수 있으며, 비용은 노동의 과중, 시간 소모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사 및 양육의 분담 정도는 부부 간 관계에서 핵심적인 교환 자원이 된다. 한국사회에서 남편의 가사 및 양육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남편의 참여는 아내에게 더욱 강한 보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반대로 아내의 가사노동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보상으로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부부가 육아와 가사를 균형 있게 분담할 때 공정한 교환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결혼만족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공정한 역할 분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바람직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신생아 첫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 양육 및 가사 분담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성의 영아기 육아휴직 사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또는 시차출퇴근제 등 남성의 초기 돌봄 참여를 촉진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0세 영아를 둔 가정은 부모의 수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때문에(Parsons·Howes, Jones, & Surtees, 2023) 야간 시간 돌봄 지원이 절실하므로 야간 방문 돌봄이나 수면 컨설팅 지원 같은 특화 서비스 지원도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부인의 시각에서 남편과 서로 잘 통한다고 느낄수록 가사 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졌고, 그렇게 평등해진 가사 분담으로 인해 남편이 느끼는 대화의 질이 높아져 이는 부인의 부부 관계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기(Carlson et al., 2020) 때문에 출산 전·후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역할 분담 계획 수립, 성역할 기대 조율, 갈등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첫 자녀 출산 후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서미정, 2018; Belsky & Kelly, 1994) 점을 감안할 때 시간제 돌봄 도우미 등을 가정에 파견하여 부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양육 및 가사 분담과 관련된 노력을 가정에서 부부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적인 협조가 없이는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육아와 가사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남편이 얼마나 육아를 도와주는지?’, ‘집안일을 도와주는지?’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러한 말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녹아있다. 이러한 질문들 속에는 육아와 가사의 주체는 어머니이며, 아버지는 이를 돋는 보조자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돕는다’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육아와 가사는 부부 모두 공동의 책임이라는 가치관 형성 및 확산을 위해 캠페인, 매스컴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추구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첫 자녀가 0세인 부부였으므로 여러 연령층의 자녀가 있는 가정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와 아버지 양육 및 가사 분담의 비율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후 연구에서는 아버지 평정,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우리나라 가정에서 양육과 가사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 및 가사 분담 불균형과 어머니 결혼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역할 분담이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신생아 첫 자녀를 둔 부부 역할에 대한 맞춤형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첫 자녀가 0세인 가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모의 양육 및 가사 분담의 상대적 불균형과 방향성을 규명하였고, 부모의 양육 및 가사 분담의 상호작용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부모기로 전이하는 가정의 어머니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첫 자녀를 갖게 된 부부의 원만한 관계 및 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미경, 박원순, 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권연희, 장영은(2025).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이중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30(3), 179 - 196.
- 김경철, 강보미(202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의 연속다중매개효과. **영유아교육·보육연구**, 15(2), 5 - 29.
- 김미령(2011).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여성연구**, 81, 69 - 101.
- 김진희, 임지영(2013). 다문화가정 부부관계가 유아의 또래관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일반가정유아를 비교대상으로. **부모교육연구**, 10(1), 23 - 52.
- 김영란(2019). **가사노동시간 측정도구 재고성안 제안 및 가사노동 수행의 젠더불평등 실태**. KWDI 이슈페이퍼.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나경애, 민경석(2020).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한국가족복지학**, 25(3), 291 - 306.
- 박영화, 고재홍(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서고운(2017).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아동의 또래놀이 행동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8(6), 79-97.
- 서미정(2017).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버지 및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간 종단적 관련성. **육아정책연구**, 11(3), 47 - 64.
- 서미정(2018). 첫 자녀 출산 부모의 결혼만족도 변화 경로 및 예측요인. **육아정책연구소**, 12(3), 31-53.
- 오성은, 김한성(2020). 맞벌이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와 결혼만족도: 가사노동분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7(4), 167 - 196.
- 유계숙, 강수향, 오아림, 이주현(2011).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5(1), 117 - 136.
- 전승희(2014). 가사와 양육분담이 여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교상담전공 석사학위논문.
- 지표누리(2025). 가사노동시간. <https://www.index.go.kr/>에서 2025년 7월 15일 인출
- 통계청(2025). 생활시간조사. <https://kostat.go.kr>에서 2025년 7월 15일 인출.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2022).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허미애, 윤상일(2024). 0세 영아를 양육하는 초보 아버지의 부모공동양육 이야기. **열린유아교육연구**, 29(5), 259 - 286.
- Barnett, R. C., & Hyde, J. S.(2001). Women, men, work, and family: An expansionist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6(10), 781 - 796.

- Belsky, J., & Kelly, J.(1994).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How a first child changes a marriage. Why some couples grow closer and others apart*. New York: Dell.
- Carlson, D. L., Miller, A. J., & Rudd, S.(2020). Division of housework, communication, and couples' relationship satisfaction. *Socius: Sociological Research for a Dynamic World*, 6, 1-17.
- Chong, A., & Mickelson, K. D.(2016). Perceived fairn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The mediating role of spousal support. *Journal of Family Issues*, 37(1), 3-28.
- Chung, H.(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3), 1015-1022.
- Curtis, K. N., Nagase, A., Kim, S., & Holloway, S. D.(2022). Raising children in the context of rapid social change: Parenting self-efficacy of South Korean moth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1(9), 2676 - 2687.
- Dew, J. P., & Wilcox, W. B.(2011). If momma ain't happy: Explaining declines in marital satisfaction among new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 1 - 12.
- Doss, B. D., Atkins, D. C., & Christensen, A.(2003). Who's dragging their feet? Husbands and wives seeking marital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 165 - 177.
- Gottman, J. M., & Levenson, R. W.(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14 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3), 737-745.
- Hayes, A. F.(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Homans, G. C.(1958). Social behavior as exchan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3(6), 597 - 606.
- Kalmuss D., Davidson A. & Cushman L.(1992), Parenting expectations, experiences, and adjustment to parenthood: A test of the violated expectations fram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3), 516 - 526.
- Kalmijn, M.(1999).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the perceived stability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409-421.
- Newkirk, K., Perry-Jenkins, M., & Sayer, A. G.(2016). Division of household and childcare labor and relationship conflict among low-income new parents. *Sex Roles*, 74(5), 319 - 333.
- Schober, P. S.(2012). Paternal child care and relationship quality: A longitudinal analysis of reciprocal associ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2), 281 - 296
- Shapiro, A. F., Gottman, J. M., & Carrère, S.(2000). The baby and the marriage: Identifying factors that buffer against decline in marital satisfaction after the first baby arriv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1), 59-70.
- Swanson, V. & Hannula, L.(2022). Parenting stress in the early years: a survey of the impact of breastfeeding and social support for women in Finland and the UK. *BMC Pregnancy and Childbirth*, 22(1), 699.
- Turner-Zwinkels, F. M., & Spini, D.(2019). (Mis-)Coordinating identities in the transition to

- parenthood: Investigating the co-development of partners' parenting, domestic and provider identities before and after the birth of the first chil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9*(4), 833 - 847.
- Parsons, L., Howes, A., Jones, C. A., & Surtees, A. D. R.(2023). Changes in parental sleep from pregnancy to postpartum: A meta analytic review of actigraphy studies. *Sleep Medicine Reviews, 68*, 101719.
- Weston, R., & Gore, P. A.(2006). A brief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5), 719 - 751.

Abstract

Effects of Parental Child–Care Division Imbalance on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in First Time Parents of Newborns: The Moderating Role of Housework Division Imbalance

Son, Seung Hee*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relative imbalance in parents’ childcare and housework division affects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in families with a firstborn newborn and examine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imbalances. Using data from the 2022 wave of the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nel, we calculated childcare–division and housework–division imbalance indices for 1,629 mothers based on their reports of each partner’s share of these tasks. Regression analyses with SPSS 23.0 and PROCESS Macro 4.2 (Model 1) tested the moderating effect of housework imbalance. Results showed that both childcare and housework imbalances significantly lowered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their interaction term was also significantly negative. Marital satisfaction declined most steeply when mothers carried a disproportionately large share of both childcare and housework, whereas in families where fathers assumed more childcare responsibilities, the negative effect of housework imbalance was attenuated. The findings highlight that perceived fairness in the division of parental roles during the newborn period is pivotal for maintaining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underscore the need for policies and programs that promote equitable sharing of childcare and housework between spouses.

Keywords : first time parents of newborns, role of housework division imbalance, parental childcare division imbalance,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Guidance, Hannam University